

## 2000년 동계학술대회 주제발표

###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 설정의 배경

허 경 철

(KICE. 수석연구위원)

#### I. 시작하는 말

2001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이 제 7차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7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침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기술·가정'이라는 과목의 이름으로 기술과 가정의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 그러나 기술과 가정의 내용을 병합한 새로운 유형의 과목을 어떠한 자격을 가진 교사가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기존의 기술교사와 가정교사의 자격 및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논의가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7차 교육과정 편제에 '기술·가정'이란 과목이 새롭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술·가정'이란 일종의 통합 과목이 과목으로 신설된 것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만족할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사실 그 누구도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 특히 편제의 개정이라는 것이 갈등되는 수많은 요구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단지 본 글에서 필자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현미경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맥락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논의되는 문제를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 필자는 우선 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연후에 7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그러한 특징의 의의에 대하여 다소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가정' 과목이 탄생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5차 교육과정 개정 시부터 7차 교육과정 개정까지의 모습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해 보았다.

#### II. 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sup>1)</sup>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구성하여 발표하였다. 신교육 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 교육 운영을 ①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②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③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 운영에서 자율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교육 운영으로, ④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⑤ 혁판과 분필 중심의 전통적 교

1) 이 부분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담당팀에서 작성, 기술한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 1999" 중 79-82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절차를 대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육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 교육으로, 그리고 ⑥ 질 낮은 교육에서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①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확대, ②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③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교육 과정 개선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 아래 교육 개혁 위원회 내에 「교육과정 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1995년 말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교육 과정의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1996년 2월 9일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교육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설정하고,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체제에 의한 교육 과정 편제 도입, ②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 과정 도입, ③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 및 구체적 내용 제시의 최소화, ④ 교육 과정 지원 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세부적인 개정 지침을 제시하였다. 교육 개혁 과제로 제시된 신교육 과정에서는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피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능동적,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정착시켜야 할 과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의 과정에서 초·중등 학교의 교육 과정 개정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도 우선적인 교육 개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제23 조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의도적인 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 관리 기능인 교육 투자, 예산, 행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육 자료, 입시 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후 제7차의 개정으로 기록되는 이번 교육 과정 개정의 배경 요인은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산업·취업 구조의 변화,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内外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 질과 속도, 범위가 종래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변혁과 전환으로서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 온 교육 내용 전반에 걸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교육 과정의 개정은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시행·정착되어 온 교육의 역사와 성과의 맥락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교육 여전과 환경, 교육 경험과 제도를 교육 개혁의 이상 실현과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정 상의 제약과 다양한 요구가 뒤따르는 복잡한 선택과 의사결정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 과정의 이상과 현실, 개혁과 유지의 갈등 속에서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자체가 안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와 실행되어야 할 개선 과제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교육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부에서는 1996년 3월부터 초·중등 학교의 교육 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과정 체제·구조개선 기초 연구, 교원·학생·학부모의 개정 요구 조사, 교육 과정 국제 비교 연구 등을 위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초 연구를 토대로 교육부에서는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여, ①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②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③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④ 지역 및 학교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교육 과정 개정 업무를 추진하였다.

개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을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 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에 위탁하고,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현장 검토,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1997년 2월 28일에 '교육 과정 총론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 교육 과정 편제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는 교과 교육 과정(각론) 개발 지침을 작성, 제시하고, 서울대학교 등 14개 연구 기관, 대학, 학회에 교과별 각론 개정 시안의 연구 개

발을 위탁하였으며, 각종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를 거쳐 교육부고시 제1997-15호로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을 확정, 고시하였다.

제 7차 교육 과정 개정에서는 학교 현장 및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년 동안 교육과정 전문가, 대학 교수, 현장 교원, 학부모 등 연 인원 14,332명이 교육 과정 개정에 참여하였고, 총론·각론 개발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연 228 회의 각종 협의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교육 과정 운영 위원회, 학교 급별 및 교과별 소위원회 등 127개의 교육과정 심의회에 1794 명의 심의 위원이 참여하여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자 수많은 열과 성의를 다하였다.

### III. 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침과 특징<sup>2)</sup>

#### 1.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침

우리가 직면하게 될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협동하고 경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하여 교육과정 2000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그 구성으로 중요한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1)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능력과 자기 주도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신장하기 위하여, 기초 학력의 충실했, 창의성과 정보 능력의 배양, 기본적인 인성 발달, 국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기회를 확충한다.

2) 교육과정 편제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한다. 10년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2·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를 학생의 능력에 맞게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추구한다. 학교, 교사, 학생의 자율적, 창의적 프로

2) 이 부분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CR96-30인 "교육과정 2000 연구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계 구조안" 중에서 49-56쪽의 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특징과 그러한 특징을 설정하는데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7차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돋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그램 편성, 운영을 위하여 재량 시간을 확대하여,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상의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4) 교과 내용의 양을 최적화하고, 학생의 이수 과목 수를 줄여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이 되게 한다. 교과별 최소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교과 내용을 정선하고, 학생의 학기 당 이수 과목 수를 축소하도록 한다.

5)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학생의 교과별 내용 성취 기준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평가 체제를 설립한다.

#### 2. 교육과정 2000의 특징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개성있고 창의적인 인간을 다양한 영역별로 소량 육성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식' 교육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녀야 한다. 그 특징을 도입의 필요성과 그 내용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도입

우리 나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 교육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사회 복지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인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21세기는 교육이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보다 확대된 기간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제로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 사회로부터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단순 노동·기능적이 고등 정신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의해 대체됨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본 교육이 보다 충실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도입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을 국민 공통 기

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설정은 초·중·고등학교간의 학교급별 차이에 따른 연속성이나 연계성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동안 교육 내용 조직이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 연속성의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다. 둘째, 교과 수를 10개로 제한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교과목 수를 10개로 제한함으로써 과편화된 지식의 전수를 예방하고 한 학기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교과를 가르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 2) 교육과정 편제에 교과군 개념 도입

교육과정 편제에 교과군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편제에서 교과군 개념의 도입은 어떤 이론적인 필연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외국어 계열과 같은 상식적인 구분의 편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정 편제에 있어서 이러한 교과군의 개념 도입은 기존의 편제보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편리한 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편제표 상에서 I 교과군, II교과군, III 교과군, IV 교과군의 상대적 비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동일 교과군 내에서 교과목간의 중복이나 비약을 예방할 수 있고, 필요시 통합 지도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학교의 재량 시간 운영에 있어서 국어, 영어, 수학 등 종래에 중시되었던 교과에 과다하게 치중하는 경향을 예방하는 방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외국의 교과 편제표와 비교할 때, 국가간 교과목의 이름이나 성격이 달라서 교과간의 비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교과군 별 비교는 비교적 용이하다. 교과군 별로 구분된 편제표에서는 학년의 상승에 따른 교과군 별 상대적 비율의 변화 추이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도입될 교과군 개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교과를 4개의 교과군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 I 교과군 : 국어, 도덕, 사회
- II교과군 : 수학, 과학, 실과
- III교과군 : 체육, 음악, 미술
- IV교과군 : 외국어(영역)

둘째, 교과군 내의 과목시간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의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교과군의 개념을 도입함

으로써 비슷한 교과들간의 통합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교과간의 중복이나 비약된 부분을 쉽게 탐지할 수 있다.

## 3)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의 학습 능력과 학습의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자기 주도적 개별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도입될 수준별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10학년 기간은 단계형 및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 수학, 영어 : 편제표에 제시된 교과 기준 시수 내에서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추가 할당된 교과 수업 시수에는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국어, 사회, 과학 : 추가 할당된 교과 수업 시수에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단일 또는 총합 과정으로 대체한다.

둘째, 11-12학년 기간은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 학생들의 장래 진로를 고려하여 과정이나 계열 중심으로 운영하던 교육과정을 단일 또는 총합 과정으로 대체한다.
- 개설될 과목의 성격에 따라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교과목을 분류하여 편성, 운영한다.

## 4) 재량 시간의 신설 및 확대

재량 시간을 신설하거나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자율성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10년에 걸쳐 재량 시간을 확보한다. 둘째,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의 일차적인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재량 시간을 신설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신설되거나 확대될 재량 시간의 편성 및 운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 시간을 신설 및 확대한다.

- 초등학교 1-2학년 : 6차 때 없던 것을 주당 2시간 신설

- 초등학교 3-4학년 : 6차 때의 주당 1시간을 주당 2시간으로 확대
- 초등학교 5-6학년 : 6차 때의 주당 1시간을 주당 2시간으로 확대
- 중학교 1-3학년 : 6차 때의 주당 1-2시간을 주당 4시간으로 확대
- 고등학교 1학년 : 1학년의 경우 주당 6시간의 재량 시간을 일반 교양 선택과목이나 범교과 학습,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에 배당함. 2-3학년의 경우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재량 시간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음.

둘째,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분한다.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과목 학습과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으로 활용한다.

#### 5) 고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등학교 2-3학년은 일부 학생에게는 종결교육의 의미를 지니며, 또 다른 일부분의 학생에게는 대학의 진학을 위한 예비 진로 탐색을 위한 계획 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 기간의 교육은 국민 기본 교육의 종결을 위한 교육임과 동시에 학생의 장래 진로나 적성에 따른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둘째, 고등학교가 종결 교육의 의미를 지니는 학생들에게는 일반 교양과 관련된 과목의 이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전문화된 교육의 의미를 지닌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보다 심화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도입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수준별로 개선한다. 둘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과정이나 계열 구분없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의 필요나 여건을 고려하여 과정이나 계열에 따라 운영할 수도 있다.

#### 6) 질 관리 중심 교육과정 개념 도입

질 관리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

다. 첫째, 현재까지의 교육과정은 국가나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른 교육과정의 계획과 편성에 일차적인 관심이 주어진 반면에 교육과정 2000에서는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둘째, 교육과정 개정이 편성, 운영에 있어서 문서상의 수사적 개정에 머물지 않고 교육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이나 그 교육과정의 적용 결과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도입될 질 관리 중심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한다. 둘째, 학생 학력 평가는 3년 주기로, 매년 3-4개 과목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실시한다. 셋째, 학교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적합성 평가를 신교육과정 적용 1년 후부터 실시한다.

#### 7)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 강화

컴퓨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대체되면서 인류의 생활이 컴퓨터망을 통한 네트워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둘째, 직장에서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고는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도입될 컴퓨터 교육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실과에서의 컴퓨터 교육 시간을 확보한다. 둘째,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관련 과목을 신설하고, 시·도 교육청은 학교가 '정보 사회와 컴퓨터' 과목을 개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한다. 셋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선택 과목으로 컴퓨터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 IV. 기술·가정 교과 설정의 배경과 과정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이란 일종의 통합(?) 교과가 설정된 배경이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기술이나 가정 관련 교과들의 성격이나 위상 또는 내용이 어떠하였으며 어떻게 변천되

어 왔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 1차 교육과정 개정 시부터 7차까지의 내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겠으나 필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연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5차 교육과정 개정 부터 7차 개정까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기술·가정 교과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 1.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기술·가정 교과 가. 중학교

제 4차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크게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두 영역으로 되어 있다. 교과활동 영역에는 도덕,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실업·가정 및 자유선택의 13교과 영역(자유선택을 교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에서 실업·가정 교과는 필수과목으로서 생활기술과 가정의 두 과목이 설정되고 생활기술은 남학생, 가정은 여학생이 필수로 택하게 되어 있었다. 생활기술과 가정의 두 과목은 1학년에서는 주당 3시간, 2학년에서는 주당 4-6시간을 배우게 되어 있었고, 한편 선택과목으로서 농/공/상/수산/가사의 다섯 과목이 주어지고 학생들은 이 중에서 1-2 과목을 택하게 되어 있었는데 남자들은 대개 농/공/상/수산 중의 한 두 과목을, 여자들은 대개 '가사'를 택하여 3학년에서만 5-7시간을 배우게 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4차 중학교 교육과정에 의하면 학생들은 매 학년마다 12과목을 배우게 되어 있었다.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실업·가정 교과에 대한 개정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4차 교육과정에서 '기술'은 (남), '가정'은 (여)라는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고, 둘째 기술과 가정을 통합한 형태의 '생활기술'이란 과목을 설정한 후, 셋째, 각 학교로 하여금 기술, 가정, 생활기술이라는 세 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만을 선택하여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1986, 제 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 담신보고서, 108쪽)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제 5차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4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편제는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의거한 것으로 미래사회와 가치관 및 현 국가 시책과 합치되지 않으며, 2) 현직 교사, 교장 및 장학사들의 과반수(75%) 이상이 통합안에 찬성하고 있으나, 3) 이 두 과목을 통합하여 가르칠 경우 현장에서는 가정 교사 보다는 기술 교사를 선호할 경향이 있어 가정 교사의 취업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4) 이 두 과목을 통합한 후 현장에서 실시할 때 파생될 문제들에 대한 사전 연구가 없으며, 5) 위의 사실들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학교장의 재량권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위의 개정 시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이러한 연구시안은 교육부 당국자에 의하여 상당 정도 수용되어 '87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87-7호로 공포된 제 5차 중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의하면 실업·가정 교과는 우선, 기술, 가정, 기술·가정의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하여 중1에서 주당 3시간, 중2에서 주당 4-6시간 가르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농/공/상/수산/가사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하여 주당 4-6시간을 중 3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다.

5차 교육과정에는 이렇게 기술은 남학생, 가정은 여학생이 배워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술을 합한 기술·가정이라는 과목이 처음으로 등장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둘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학교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필자는 기술·가정이라는 일종의 통합과목이 어느 정도나 실제로 선택되었는지 현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시안과 최종안이 다른 점은 연구시안의 '생활기술'이란 이름이 최종안에서는 '기술·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점이다.

### 나. 고등학교(일반계)

제 4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업·가정 교과안에 여러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산업기술과 가정의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하여 고 1과 2학년에서 각각 8-10단위씩, 그리고 고 3에서는 4-8단위를 이수하게 되어 있다. 또한 농/공/상/수산/가사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하여 고 1과 2학년에서 각각 8-10단위를 하게 되어 있다.

제 5차에서는 산업기술이란 과목의 이름을 '기술'로

변경한 것. 그리고 농/공/상/수산/가사의 5과목 이외에 '정보산업'이란 과목을 하나 더 설정하여 하위 과목으로 포함시킨 점. 그리고 이수단위에서 급간을 없애고. 4차 때의 최소 단위로만 고정시켰다는 점 이외에는 개정된 사항이 없었다. 이러한 개정의 이유나 배경은 중학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6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 교과 가. 중학교

6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을 위한 연구는 1991년도 수행되었었다. 그 결과 보고서에는 기술과 가정을 통합한 '기술·가정'과목을 1. 2학년의 남·녀 모두에게 필수로 부과하고. 3학년에서는 '생활과 직업'이라는 과목을 신설하여 이것 역시 남녀 모두에게 필수로 부과 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1991.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체계 및 구조 개선 연구, 120쪽). 그리고 그러한 제안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기술, 가정, 기술·가정 중에서 택 1. 농, 공, 상, 수산, 가사 중 택 1 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국 거의 모든 학교에서 여자에게는 가정과 가사를, 남자에게는 기술과 농, 공, 상, 수산업 중에서 하나를 부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은 남·여 성 역할의 편견과 고착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제 4차와 제 5차의 개정 시에 기술과 가정을 통합하여 남·여 모두에게 필수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가정을 1. 2학년의 남·녀 모두에게 필수로 부과하였다. 그리고 3학년에서는 '생활과 직업'을 신설하여 이것 또한 필수로 부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편제안에서는 남·여를 구분하거나 따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과목은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학생에게도 일반적인 기술의 습득을 그리고 남학생에게도 가정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였다(위의 보고서, 119-120쪽)."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교육부에 의하여 그대로 수용 되지는 않았다. 1992년 6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로 공고된 제 6차 중학교 교육과정에 의하

면 기본 편제에서 '실업·가정'이라는 교과의 명칭은 사라지고 그 하위 과목들의 이름만 제시된다. 연구보고서는 '기술·가정'이란 과목과 '생활과 직업'이란 과목을 제안했으나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기술·산업'이란 과목과 '가정'이란 과목을 설정하고 전자는 중 1에서 3학년까지 주당 1. 2. 2시간씩 남·녀 모두에서 필수로 배우게 하고. 후자는 주당 2. 1. 1시간씩 배우게 했다.

이 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실업·가정 교과의 중요한 변화는 1) '실업·가정'이라는 교과의 이름이 없어졌다. 2) 8개로 구분되어 있었던 복잡했던 하위 과목들이 '가정'과 '기술·산업'이라는 두 개의 과목으로 정리되었다는 것. 3) 남·녀 및 학년에서의 선택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학년에서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필수로 되었다는 점 등이었다.

## 나. 고등학교(일반계)

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연구팀에서는 실업·가정 교과에서 5차 교육과정의 이원적인 체제를 폐지하고 모든 하위 과목들에게 동등한 위치를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실업·가정 교과 내에 기술, 정보산업,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기타의 8(기타를 포함하면 9)과목을 두고 각 과목에 6단위씩을 배정하였다. 여기서 '기타'의 경우 학교장에게 일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 과목에 설정된 과목들 중에서 특정 과목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새로운 과목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또한 5차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모든 교과목들을 교육부가 결정하는 공통필수과목과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는 과정별 선택교과으로 구분하고. 실업·가정 교과를 '과정별 선택'교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이유를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 4차와 5차의 교육과정 편제에서는 실업·가정 교과에서 2과목을 택하여 8단위씩 16단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이수단위의 약 8.3%가 된다. 제 4차 개정시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희망 학생들에게 실업·가정 교과의 과목을 2과목으로 분리하여 16단위나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의 대안 회의와 논의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1990년도 음성고등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실업·가정 교과를 유익한 교과라고 기술한 학생은 전체의 약 2%에 불과했다. 그리

고 교사들은 교련교과 다음으로 많이 이 교과의 단위 수를 줄이기를 희망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실업·가정 교과의 이수과목수와 단위수는 현재나 미래의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위 보고서 154-155쪽)."

연구진의 위와 같은 제안은 1992년 10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2-19호로 공고된 제 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안에 약간의 수정된 상태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6차 교육과정 편제안에 의하면 모든 과목들은 '공통필수 과목'과 '과정별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고, 실업·가정 교과는 과정별 필수 과목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하위 과목들로 기술(8), 가정(8), 농업(6), 공업(6), 상업(6), 수산업(6), 가사(6), 정보산업(6), 진로직업(6)의 9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실업·가정 교과 내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어느 과목을, 그리고 몇 개의 과목을 선택하느냐는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연구진의 제안과 다소 다른 점은 연구진이 제안한 '기타' 대신에 '진로직업'이란 과목이 포함되었다는 점과 과목별 배당 이수단위수가 조금씩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 3. 7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 교과

7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제 1단계는 95년 1월에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의 3소위원회에서 같은 해 7월까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활동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에 대해서도 개혁의 사항들을 제안하였는데 교육과정 영역에 관한 개혁 제안 내용은 그 중의 일부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것들이었다. 이 단계에서 제안된 교육과정 관련 개혁 내용 중에서 특히 편제와 관련되는 항목은 1)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2) 정보화, 세계화 교육 강화, 3)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 등이었다.

제 2단계는 95년 8월부터 96년 2월까지 교육과정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끌격은 물론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도 제안되었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선택중심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아이디어들이 구상되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편제의 기본적인 내용도 제안되었다. 한가지 주목할 사항은 이 단계에서는

초·중학교까지의 편제는 시안을 구안하였으나 고등학교 2-3학년의 편제에 대해서는 시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 3단계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개발한 이 시안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교육부로 위임된 이 시안이 다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위임된 후 교육개발원에서 이 시안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총론 시안과 각론안을 개발한 '96년 3-4월경부터 97년 10월까지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동안 고등학교 2-3학년의 편제를 포함하여 제 7차 교육과정 총론 최종 시안이 개발되어 '96년 12월에 교육부에 제출되었으며 각론 시안들도 교육개발원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에 의하여 '96년 12월부터 97년 10월까지 개발되어 교육부에 제출되었다.

제 4단계는 교육부에 제출된 총론 시안과 각론 시안들이 교육부에 의하여 검토, 수정, 보완되어 최종적인 제 7차 교육과정 고시로 공포되기까지의 시기이다. 실제로 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7-15로 공포되었으므로 산술적으로는 제 4단계는 2달에 해당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실제로 총론 시안과 각론 시안을 검토, 수정한 시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 수정작업은 시안들이 개발되는 과정에도 가능하였고, 특히 총론 시안은 공포날보다 1년 먼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 가. 중학교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제는 교육과정특별위원회(교특위)에서 연구, 개발한 시안,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시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결정한 안 등으로 분석하여 기술해 볼 수 있다.

교특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의 10년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10년간의 교육과정 편제의 체계를 일관성있게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10개 교과를 국민공통기본교과로 설정하고 이를 10년 동안 공통필수로 가르치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정했다. 실과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에서의 가정교과와 기술·산업 교과는 '실과'라는 하나의 교과로 통합한다. 이 교과에서는 가정과 기술·산업의 두 교과의 내용 중에서 중학교 학생 모두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과 정보 및 생활과학 내용을 선정하여 이를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로 가르치도록 한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 분야(목공, 설계, 기계, 전기, 요리, 수예, 가사, 농사, 원예 등)로 나누어 제시하고, 단위학교는 지역사회나 학교의 특성 또는 학생의 요구를 고려하여 여러 분야 중에서 특정 분야를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한다(교육개혁보고서, 1996, 867쪽)".

이러한 교육위의 시안이 교육부를 거쳐 교육개발원으로 전달되고 교육개발원은 시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7차 교육과정 편제안을 개발하였는데 개발된 내용을 보면 중학교 단계에서의 실과는 기술·가정이라는 명칭으로 그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중 1부터 고 1까지 주당 각각 2, 3, 3, 3시간씩 배정하였다.

교육부는 이 안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제 7차 교육과정 편제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기술·가정이라는 과목이 중 1부터 중 3까지 주당 2, 3, 3시간씩 남·녀 모두에게 필수로서 가르치게 되어 있다.

#### 나. 고등학교

7차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편제의 내용은 앞에서 기술 한 바와 동일하다. 그러나 2-3학년은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새로운 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 시안적 내용은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시안에 제시되어 있다.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교육과정 시안(교육개발원 총론 개발 보고서, 1996, 104쪽)에 의하면 2-3학년에서 제공되는 모든 교과목들은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으로 구별된다. 일반선택은 5개의 군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가정 관련 과목으로는 '정보사회와 컴퓨터(4단위)'라는 과목이 '생활수학', '과학의 발달'이란 과목과 묶여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군에서 최소한 한 과목은 가르치게 되어 있다. 심화선택 과목으로는 농업과학(6), 공업기술(6), 기업경영(6), 해양과학(6), 가정(6)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개발원의 시안은 그대로 교육부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내용

을 보면 고등학교 2-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위의 내용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한가지 다른 점은 시안에서의 '가정(6)'이 고시에서는 '가정과학(6)'이라고 그 명칭이 다소 달라졌다는 것이다.

#### V. 맷는 말

4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술·가정' 과목은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설정된 과목이 아니다. 그 과목은 이미 제 5차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속에 "실업·가정" 교과의 하나의 하위 과목으로서 정식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기술·가정·기술·가정의 세 과목을 제시되었고 학교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그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하여 가르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6차에서는 '기술·산업'과 '가정'으로 분리되었다가 7차에서 '기술·가정'으로 다시 통합되었던 것이다.

4차 이후 교육과정 편제 개정의 주요 방침 중의 하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학년 또는 학기당 이수과목수의 축소였다. 그러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필수교과목의 축소와 선택교과목의 확대였다. 필수과목수가 많을수록 이수과목수는 늘기 마련이기 때문이었다. 필수과목을 축소하는 방법은 과목을 폐기하거나 통합 또는 선택과목화 하는 것이다. 어떤 과목을 폐기, 통합, 선택과목화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교련 과목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그리고 현재 거의 폐기되기에 이른 것 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술과 가정 과목은 7차에서는 기술·가정이라는 과목으로 통합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므로 6차에 비하여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과목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과목 내용의 개인적, 사회적 효용성을 높여 기술·가정 교과목에 대한 학생, 부모, 일반인들의 긍정적, 적극적 인식을 획득하는 일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
- (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 2차 대통령 보고서
- 교육부(1992). 중학교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 \_\_\_\_\_(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1)
- \_\_\_\_\_(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 \_\_\_\_\_(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 총론, 특별활동
- \_\_\_\_\_(2000). 제7차 교육과정의 개요. 교육과정자료 29
-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1990).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 개선 연구
- 문교부(1986).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1946~  
1981
- \_\_\_\_\_(1987). 중학교 교육과정
- \_\_\_\_\_(1988). 고등학교 교육과정
- 한국교육개발원(1986). 제5차 교육과정 총론 재정시안의  
연구. 개발 담신보고서
- \_\_\_\_\_(1996).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